

# 經脈脈診법인 十二經脈脈診, 三部九候診, 人迎氣口診의 寸口脈으로의 演變에 關한 研究

任韓帝\* · 尹鍾和\*\*

\* · \*\*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大韓醫藥氣功學會

## I. 緒論

脈診은 經脈의 發見과 形成過程의 經脈楯診에서 起源하였고<sup>1)</sup>, 先秦醫家들은 靜脈의 觀察에서 始作하여 動脈의 搏動을 按診하여 觸知할 수 있는 血管을 中心으로 經脈을 認識하여 經脈의 度量長短에 대나무 자를 利用하여 測定하였다<sup>2)3)</sup>. 先秦時期의 “脈”

에 對한 認識은 經脈의 ‘脈’ 과 脈診의 ‘脈’ 의 意味가 混在되어 있었고 西漢初期에 脈診은 經脈에서 分厘되었다<sup>4)</sup>.

脈診의 起源은 B.C 5세기에 扁鵲이 脈診으로 疾病의 部位를 診斷한 記錄

“古人들은 血管의 搏動을 <<素問三部九候論>> “兩額之動脈” 등에는 “動脈” 으로 指稱하였고, <<內經>>에는 動脈管, 靜脈管의 區別은 없다. 그러나 二種類의 血液과 血清에 對한 認識이 있었다. <<靈樞血絡論>> “出血而射者, 何也?” 는 明確히 動脈의 血液이며, “血少, 或而濁者, 何也?” 는 靜脈의 血液이 分明하며, “出血, 清而反爲汁者, 何也?” 는 血清의 認識이 分明하다. 近代의 張山雷는 動脈을 發血管, 靜脈을 洄血管이라 하였다. 動脈, 靜脈이 19세기 日本의 翻譯으로 탄생한 用語임을 생각하면 韓醫學의 古醫籍의 經脈과 脈診의 研究에 많은 것을 示唆한다.”

- 1)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上海: 文匯出版社, 1994: pp.22-27.
- 2)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 p.122, pp.137-145, pp.182-185.  
“<<漢書·王莽傳>> “以竹筵導其脈”, 古人들인 血管(中有空), 神經(中無有空)으로 認識”
- 3)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p.41.

- 4)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pp.22-27.

에서 推測할 수 있고<sup>5)</sup>, <<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黃帝扁鵲之脈書>>의 書名이 記載되어 있다<sup>6)</sup>. 한편 馬王堆 (B.C 2세기) 出土 醫書 중 <<脈法>>과 <<陰陽脈死候>>는 脈診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先秦時代의 比較 脈診法등을 論述하고 있다<sup>7)8)</sup>.

古代의 脈診에 對하여 滑<sup>9)</sup>은 <<難經本義·難經彙考>> “古人之於脈, 其察之固非一道矣” 하여 古代의 脈診의 方法은 多樣하다 하였고, 騰<sup>10)</sup>은 “凡診脈之法, 靈素所述皆非一道” 하였다. <<史記·倉公傳>>의 倉公 醫案은 寸口診이고 <<脈經>>의 扁鵲脈法으로 推論하면 <<扁鵲脈書>>는 寸口診으로 類推할 수 있고<sup>11)</sup>, <<黃帝脈書>>는 經脈脈診의 內容으로 보면 十二經脈脈

診, 三部九候診, 人迎脈口診등으로 推論할 수 있다<sup>12)</sup>

그리고 馬<sup>13)</sup>는 <<黃帝內經>>의 三部九候診, 人迎脈口診 및 <<傷寒論>>의 寸口脈과 趺陽脈, 太溪脈을 比較하는 脈診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影響이라 하였고, 王<sup>14)</sup>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적으로 同時代 혹은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으로 推測하였고, 登<sup>15)</sup>은 三部九候診은 人迎寸口診이 발전된 脈診法으로 鍼灸經穴治療의 중요한 整體 診察法이라 하였다.

脈診의 延變은 疾病의 認識과 豫防, 病因의 區分 및 五臟六腑의 虛實判斷 등의 診斷目的에 따라 診脈法을 改變하여 運用하여 왔다. 그리고 診斷의 目的은 治療에 있으며 治療方法의 變遷에 따른 脈診方法과 部位를 發生時期에 따라 整理하면 經脈과 脈診의 相

5) 黃世林·孫明興.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

6) 前揭書, 龍伯堅, pp.3-6.

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274-320.

8) 周一謀·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pp.42-45.

9)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2.

10) 騰萬卿. 難經古義. 台北: 泰和堂出版社, 1979: p.1.

11)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295-307.

12) 羅慶燦. 黃帝內經의 脈理法과 診脈法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 東國대학교 한의과대 연구소 논문집. 1993: p.2(1), pp.99-100.

13) 前揭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pp.274 - 320.

14)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1328-1329.

15) 登良月. 中國針灸經絡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6: p.206.

關性和 脈診의 延變系統을 推論할 수 있다. 또한 現在 혹은 未來의 脈診의 變化를 豫測하여 볼 수 있다.

이에 論者는 <<陰陽十一脈灸經>> <<難經·一難>>의 十二經脈의 變動을 觸診하는 ‘十二經脈脈診<sup>16)</sup>’, <<素問·三部九候論>>의 上中下의 天人地의 九候를 診脈하는 ‘三部九候診’ 및 <<靈樞經脈>> <<靈樞終始>>의 足陽明의 頸動脈의 人迎脈과 手太陰의 手腕關節의 寸口脈을 比較하는 ‘人迎寸口診’의 經脈診斷의 比較 脈診法에 關하여 研究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十二經脈脈診.

#### 1) 十二經脈脈診의 起源

十二經脈脈診의 名稱은 韓醫學의 古醫籍에는 없으며 先秦의 文獻인 <<陰陽>> <<脈法>>, 秦 兩漢의 文獻인 <<素問·三部九候論>> <<靈樞經脈>> 등의 <<內經>>, 西漢의 著作인

16) 林之灝, 四診抉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3-84.

<<難經>> 및 唐代의 <<千金翼方>> 등의 醫書를 通하여 十二經脈脈診은 先秦에서 漢代까지 運用된 脈診法으로 推論할 수 있으며, 鄧<sup>17)</sup>은 “<<易緯通卦驗>>에 는 具體的인 脈診의 部位는 없으나 四肢診脈의 十二處에서 診脈하여 나타나는 十二脈診病候가 記載되어 있다.” 하였다.

馬王堆 漢墓 (B.C 168년)의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現存하는 經脈, 經脈脈診,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專門書籍이며 診脈의 目的 部位 方法 및 脈象과 疾病의 治療 등을 論述하고 있다.

古代의 脈診의 方法들을 聚合하여 獨取寸口說을 立論한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할 수 있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sup>18)19)</sup>, 唐代의 <<難經集注<sup>20)</sup>>>, 元代의 <<難經本義<sup>21)</sup>>>, 清代의 <<難經洵注箋正<sup>22)</sup>>>

17) 鄧良月·黃龍祥. 中國針灸證治通鑒. 青島: 青島出版社. 1995: pp.3-22.

18) 前揭書, 何愛華. pp.295-307.

19)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58-59.

20)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 臺灣中華書局, 1985: pp.5-10.

21) 前揭書, 滑壽. pp.1-4.

등의 <<難經>> 註釋書에 약간의 差異는 있지만 十二經脈의 動脈處가 記載되어 있고, <<針灸甲乙經>> <<銅人腧穴針灸圖經>> <<醫宗金監·刺灸心法要訣>>등의 針灸書籍에 “動脈應手” 하는 經穴이 記錄되어 있다.

十二經脈의 發見初期에는 經脈의 概念과 脈診의 脈의 概念이 混再되어 있었고<sup>23)</sup>, 古人들의 脈의 認識은 間斷에서 複雜으로 深化되는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經脈의 走行을 觸診하여 搏動을 확인하는 過程에서 十二經脈脉診이 由來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鄧<sup>24)</sup>은 <<足臂>>의 足少陽脈의 循行의 原文에서 “出于踝前 …… 出于股外廉 出脇 …… 出于項 耳 出枕 出目外眦” 에서 “出” 字를 使用하여 全過程의 循行을 描寫하고 있으며 <<明堂經>> <<難經>> 呂廣, 楊玄操註, <<素問>> 王水註 및 <<千金要方>> 등의 醫書를 보면 <<足臂>> <<陰陽>>의 十一脈의 循行에서 “出” 字로 描術되어 있는 部分은 모두 動脈處임을 알 수 있다.“ 하였다.

(表. 1) 十二經脈의 動脈部位

十二經	呂 廣	楊 玄 操	滑 壽
足太陽	委中	委中	委中
足少陽	耳前	下關 懸鐘	下關 聽會
足陽明	趺上	衝陽 人迎 大迎	衝陽 人迎 大迎 氣衝
手太陽	目外眦	瞳子膠	天窗
手少陽	客主人	客主人 聽會	和膠
手陽明	口邊 陽溪	地倉	合谷 陽溪
足厥陰	人迎	面骨 (回骨)	太衝 五里 陰廉
足少陰	內踝下	內踝上五 寸間	太溪 陰谷
足太陰	髀上	箕門	箕門 衝門
手少陰	掖下	極泉 靈道 少海	極泉
手心主	勞宮	勞宮	勞宮
手太陰	太淵	太淵 尺澤 俠白 天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22)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洞注箋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p.57.

23)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pp.22-27.

24) 前掲書. 鄧良月·黃龍祥. pp.3-22.

한편 <<難經集注>>에서 北宋의

丁<sup>25</sup>)은 “手足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天地의 陰陽이 通하고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여 十二經의 動脈處에서 百病을 診斷하고 生死를 鑑別할 수 있다” 하여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診斷하는 方法에 對한 意義를 說明하였다.

그리고 <<陰陽>>의 “……是僮則病……”, <<靈樞經脈<sup>26</sup>>>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와 “是動則病”의 句節, <<脈法>>의 脈診法 및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에서 十二經脈脈診이 있음을 推論할 수 있으며 鄧<sup>27</sup>)은 “<<蝦蟆經>> <<脈經>>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및 <<太平聖惠方>>에는 十二經脈脈診에 該當하는 經脈穴의 部位가 記載되어 있다.” 하였다.

鄧<sup>28</sup>)은 (表. 2)의 經脈穴은 診斷處인 脈口와 相應하며 腕 踝部를 超過하지 않으며 經脈穴은 脈口에서 由來하였기 때문에 그 部位에 “脈”의 原來의 意味를 保有하고 있고, 현재의 脈

穴의 概念과 同一하지 않으며 <<脉經>>의 ‘足大指間’ ‘足上動脈’ ‘足內下動脈’ ‘手腕中’ 등의 記載는 經脈穴과 一致한다.” 하였고, <<針灸甲乙經·卷十二>>에는 足太陽 陽明 手少陽脈 動發目病, 手太陽 手少陽脈 動發耳病, 手足陽明脈 動發齒病 등의 記載가 있다.

한편 鄧<sup>29</sup>)은 “<<靈樞衛氣>>의 標本은 動脈診의 行한 診脈處이며 <<九針十二原>>의 十二原穴은 標本의 本에 該當하는 十二經脈의 診脈處이며, 또 各 經脈의 經脈名과 같은 ‘經脈穴’ (合谷 陽谿穴 附近의 動脈處의 名稱을 手陽明穴 등 經脈의 名稱과 같은 古代의 經脈名穴)은 <<素問·氣交變大論>> <<至真要大論>> <<厥論>> 등의 <<素問>> <<靈樞>>에서 運用한 脈診의 部位이다.” 하였고, 또 鄧<sup>30</sup>)은 “<<陰陽>> <<經脈>>의 “是動則病……是××脈主治”의 內容은 動脈處의 診斷 및 “經脈穴”의 主治病症의 總結이며 …… <<足臂>>의 經脈病候와 <<陰陽>>의 “是僮則病”의 病候의 治療에 經脈穴에 灸를 利用하였고 經脈穴의 主治는 各 經脈의 病候가 되었

25) 前揭書, 王九思, pp.5-10.

26)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64-266.

27). 前揭書, 鄧良丹·黃龍祥. pp.3-22.

28). 上揭書, pp.3-22.

29). 上揭書, pp.3-22.

30). 上揭書, pp.3-22.

다." 하였다.

## 2) 十二經脈脉診의 延變.

<<足臂>> <<陰陽>>의 經脈은 人體에 있어 一種의 上下 連繫의 規律이며 臟腑와의 連繫는 없어 <<脈法>>의 “相脈” 즉 比較脈診의 方法 및 治療法은 十二經脈의 各 診脈處의 搏動力으로 各各의 經脈의 盛衰를 살피는 過程에서 萌芽하였다고 생각되며, <<靈樞·經脈>> “不與衆動, 是以知其何脈之病也” 와 <<靈樞·動腧>>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 의 文句 및 <<素問·脈解>>의 經脈病候는 十二經脈脉診의 病候의 解釋이며 <<素問·至眞要大論>>의 脉診部位는 十二經脈脉診의 部位와 같은 ‘某某某脈口’ 이다<sup>31)</sup>. 이는 <<脈法>>의 十二經脈의 比較脈診을 <<內經>>의 著作時期에도 運用한 것을 推論할 수 있으며, 王<sup>32)</sup>은 “<<內經>>의 成書前 혹은 成書後에 比較的 盛行한 診斷法으로 一個의 學派가 形成되어 있었다” 하였다.

翟<sup>33)</sup>은 “<<內經>>에는 寸口에 明

31) 上揭書, pp.3-22.

32) 前揭書, 王洪圖, pp.1328-1329.

確한 臟腑配屬이 없었다. 이는 肝脈, 心脈 등의 十二經脈의 各 經脈을 診察할 수 있는 部位가 있었다” 하였고, <<素問·大奇論>>에는 奇病의 診斷을 心脈, 肝脈, 腎脈, 肺脈, 脾脈의 大, 小, 緩, 急, 滑, 澁, 結에 따른 各種病症을 詳細히 論述하고 있고, 또 五臟脈의 表現과 病症외에 “三陽急爲瘕, 三陰急爲疝, 二陰急爲癰厥, 二陽急爲惊” 하여 太陽, 太陰, 少陰, 陽明의 弦急에 따른 各種病症이 있고, 鄧<sup>34)</sup>은 “手足의 腕踝 附近의 脈診處이자 經脈穴에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厥陰, 少陰으로 三陰三陽으로 命名하였고 …… 經脈과 臟腑의 連繫에 있어 手足의 六陰脈이 五臟과 먼저 連繫가 되고 以後에 手足의 六陽脈과 六腑의 連繫가 이루어 졌다.” 하였고, 또 鄧<sup>35)</sup>은 “<<內經>>에 있는 脈診을 보면 ‘人迎脈’ 의 胃脈 以外에는 六腑의 脈은 볼 수 없고 五臟의 脈만 볼 수 있다.” 하였다

또 <<素問·病能論>> “有病怒狂者 …… 陽明者常動, 巨陽 少陽不動, 不動而動大疾, 此其候也” 의 文句를 張<sup>14)</sup>은 “正常的인 狀況에서 太陽의 委

33) 上揭書, pp.1328-1329.

34) 前揭書, 鄧良月·黃龍祥 pp.3-22.

35) 上揭書, pp.3-22.

中, 崑崙, 少陽의 聽會, 懸鐘등의 搏動은 미세하며 갑자기 甚하게 動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였고, 王<sup>36)</sup>은 “<<素問·病能論>> “人病胃脘癰者, 診斷何如? …… 當候胃脈 人迎者, 胃脈也” 하고 <<素問·平人氣象論>> “胃之大絡虛里 …… 其動應衣, 脈宗氣也” 하여 陽明經의 胃經은 人迎穴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虛里에서 胃腑에서 所生하는 宗氣를 診斷하는 등의 방법은 <<難經>> 以前의 十二經脈의 動脈診으로 생각된다.” 하였고, 鄧<sup>37)</sup>은 “後人들은 <<靈樞·衛氣>>의 標本을 古代의 動脈診의 部位로 解釋하지 않아 十二經標本診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 하였다.

한편 王<sup>38)</sup>은 “十二經脈의 搏動處에서 本經 및 絡脈 所屬의 臟腑의 病變을 反影하는 局部의 觀察法은 全面的인 觀察의 整體的인 診察方法으로 運用되었다” 하였고, 王<sup>39)</sup>은 “十二經脈의 動脈處에서 脈搏의 遲數, 脈體의 大小 및 脈의 流動 등의 情況이 綜合되어 <<靈樞·邪氣藏府病形>>에 五臟

脈의 急甚, 急緩, 緩甚, 微緩, 大甚, 微大, 小甚, 微小, 滑甚, 微滑, 澁甚, 微澁등의 各種의 症狀이 詳細히 描寫되어 있다.” 하였다.

그리고 王<sup>40)</sup>은 “十二經脈診의 理論과 臨床運用은 <<內經>>의 成書時期의 前後에 長時間 運用된 方法이며 十二經脈診을 運用한 學派의 論文이 滙篇되어 <<內經>>에 遍在되어 있다” 하였고, 鄧<sup>41)</sup>은 “十二經標本診과 三部九候診은 部位, 病理 및 治法에 있어 相互 聯關性이 있다” 하였고, 또 王<sup>42)</sup>은 “十二經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的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診이 조금 앞선 것이다” 하였다.

近代의 張<sup>43)</sup>은 “淺部の 動脈處는 ‘捫而可得’ 하면 頭額 項, 顙, 肩, 背, 臂, 頸, 手指, 足跗 및 足趾間에서 觸知할 수 있다” 하였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sup>44)</sup>>>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十二經脈에는 各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

36) 前掲書, 王洪圖. pp.1328-1329.

37) 前掲書, 鄧良月·黃龍祥. pp.3-22.

38) 前掲書, 王洪圖. pp.1328-1329.

39) 上掲書, pp.1328-1329.

40) 上掲書, pp.1328-1329.

41) 前掲書, pp.3-22.

42) 前掲書, 王洪圖. pp.1328-1329.

43) 前掲書, 張山雷. p.57.

44)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85.

할 수 있으며, <<難經>> 以後의 <<針灸甲乙經>> <<千金方>> 및 <<銅人腧穴針灸圖經>> 등에 記載된 經穴에 “動脈應手”의 部位는 差異가 있지만 <<難經>>의 注家들인 呂廣, 楊玄操 및 滑壽 등이 言及한 動脈의 搏動處이다.

그리고 論者는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何謂也” 하여 十二經脈脉診은 單獨의 臟腑 및 經脈을 診斷하는 脈診法에서 臟腑 相互間의 病理를 把握할 수 있는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의 氣口脈으로 延變되었다고 思料된다.

十二經脈의 動脈 搏動處를 比較하는 脈診法은 煩雜하여 다른 經脈脉診의 方法이 考案되어 臨床에 運用되자 醫家들의 利用度는 적었다. 그러나 <<靈樞動脈>>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 足少陰, 陽明獨動不休, 何也” 하여 十二經脈의 動脈處 中에서 診斷의 意義와 搏動을 쉽게 感知할 수 있는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 등은 <<傷寒論>> <<金匱要略>> <<脉經>> 등의 古醫籍에 記載되어 있다.

한편, 葉45)은 “身體의 動脈處는 <<明堂針灸圖>> <<甲乙經>> 등의 醫籍에는 20 餘穴이 있으며 10 餘穴만이 診脈에 利用되었고 10 餘穴 中에 足脈의 太溪 衝陽 太衝이 重要하다” 하였고, 徐46)는 “手太陰의 太淵, 足陽明의 人迎, 足少陰의 太溪의 動脈 등 3곳 以外의 十二經脈의 動脈處는 단지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하였고, 張47)은 “動脈은 無時無動하고 古人들이 言及한 動脈處는 모두 肌肉의 淺表에 있는 動脈의 按診處들은 聯關關係가 없으므로 古醫籍의 動脈處의 差異를 穿鑿할 理由가 없다” 하였다.

## 2. 三部九候診.

### 1) 三部九候診의 意義

三才思想은 <<孟子·公孫丑下>> <<莊子·齊物論>> <<老子·二十五章>> 등의 先秦以前의 認識이며, <<淮南子·

45)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p.1

46)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7.

47) 前揭書, 張山雷. p.57.



天文訓>>에서 思想的 體系가 세워졌으며<sup>48)</sup>, '三' 을 萬物發生의 基本數로 생각하였다<sup>49)</sup>. 그리고 張<sup>50)</sup>은 “人體에는 天은 皮膚에 應하고, 地는 肉에 應하고, 人은 血液에 應하며, 一部에 皮, 肉, 血液이 있다” 하였다. <<呂氏春秋·有始覽篇<sup>51)</sup>>>에서 “三三은 九” 하여 九는 無限 無數의 意味한다” 하였다. 그리고 張<sup>52)</sup>은 “人體에는 九가 九野, 九臟에 應하며 <<素問·三部九候論>>에서 九候는 神五臟·形臟<sup>53)</sup>에 應한다” 하였다.

<<素問·著至教論>> <<素問·氣交變大論>> “<<上經<sup>54)</sup>>>曰, 夫道者, 上知

48) 前掲書, 羅慶燦. p.2(1), pp.99-100.

49) 前掲書, 王洪圖. pp.1328-1329.

50) 張志總.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4-90.

51) 前掲書, pp.1328-1329.

52) 前掲書, 張志總. pp.84-90.

53)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88-290.

王冰은 神臟은 “肝藏魂, 心臟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의 五臟은 神이 配屬되어 있어 神五臟이라 하고, 形臟은 王冰은 “一頭角, 二耳目, 三口齒, 四胸中”하였고, 張志總은 “胃主化收穀之津液, 大腸主津, 小腸主液, 膀胱者津液之所藏”하였다. “頭角, 耳目, 口齒, 胸中”을 臟으로 보는 것은 困難하다. 胃, 小腸, 大腸, 膀胱을 形臟四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可以長久.” 하여 三才思想이 先秦時代의 思想體系로서 先秦醫學에 影響이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다<sup>55)</sup>. 그리고 <<素問>> <<靈樞>>에서는 人間과 天地自然의 關係를 重視하여 형성된 三才思想을 收容하여 三陰三陽論, 九針論의 根底의 醫學思想으로 經脈, 針灸 및 脈學 등의 醫論을 確立하였다.

三部九候診은 十二經脈脈診을 天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에 두고 整理한 것이라 생각되며, 王<sup>56)</sup>은 “三才思想의 概念이 古代醫家들의 脈診法에 수용되어 十二經脈의 搏動處를 전부 診脈하지 않고서도 三部九候를 診하면 身體의 모든 部位를 觀察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脈診部位의 名稱을 天部, 人部, 地부로 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54) 前掲書, 龍伯堅. pp.3-6.

<<上下經>> 은 B.C 180 년에 倉公이 스승 陽慶에서 받은 醫書 중 하나이며, <<素問·疏五過論>> <<素問·陰陽類論>>에 <<上下經>>의 書名이 있으며, <<素問·氣交變大論>>에는 <<上經>>의 文句가 引用되고, <<素問·痿論>>에는 <<下經>>의 文句가 引用되었다.

<<素問·病能論>>에 “<<上經>>者, 言氣之通天也. <<下經>>者, 言病之變化也.” 하여 <<上經>> <<下經>>의 內容의 言及하고 있으며, <<素問·生氣通天論>>에 <<上經>>의 內容이 保存되어 있을 可能性이 많다.

55) 前掲書,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pp.108-111.

56) 前掲書, 王洪圖. pp.1328-1329.

하였다.

그러나 三部九候診은 煩雜한 十二經脈脈診과 비슷한 방법 혹은 十二經脈脈診을 더욱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보이지만 十二經脈脈診과는 別途의 思想的 體系의 새로운 脈診法이며, 王<sup>57)</sup>은 十二經脈脈診과 三部九候診은 상호 다른 學派의 診斷法이며 時代的으로 同時代거나 十二經脈脈診이 조금 앞선 것으로 推測하였다.

<<素問>>의 醫學思想은 窮極的으로 豫防醫學에 있었고, 三部九候診을 行하면 發病以前에 邪에 對한 罹患을 알 수 있어서 早期治療가 가능하므로 <<素問·八正神明論>> “三部九候爲之原, 九針之論, 不必修也. …… 上工救其萌芽, 必先見三部九候之氣, 故曰上工. 下工救其已成, 救其已成者, 言不知三部九候之相失, 因病而敗之也.” 하여 三部九候診은 豫防 醫學的인 面에 有用하게 利用한 脈診法으로 생각된다.

## 2) 三部九候診의 部位 및 方法

### (1) 三部九候診의 部位

57) 上揭書, pp.1328-1329.

三部九候에서는 十二經脈의 모든 變動을 詳細히 살피는 것은 困難하다. 그러므로 十二經脈에서 九候를 除外한 小腸經, 心包經, 膀胱經 등의 三經의 變動은 직접 알 수 없다. 그러나 楊<sup>58)</sup>은 “十二經脈에서 陰은 心臟과 差異가 없어 九候에 넣지 않고, 上部의 天人地의 頭角, 耳目, 口齒의 氣를 살피는 三候를 제외하고, 中部의 天人地의 肺, 心, 大腸 및 下部의 天人地의 肝, 腎, 脾의 表裏經인 手太陽, 手少陽, 足太陽, 足少陽, 足陽明의 五經은 臟을 診斷하면 表를 알 수 있어 九候에 넣지 않는다” 하였다.

三部九候診의 部位는 <<素問·三部九候論>>의 注家들의 部位에 對한 見解의 差異가 있다. 隋代의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sup>59)</sup>>> 唐代의 王冰의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sup>60)</sup>>>, 明代의 張介賓의 <<張氏類經<sup>61)</sup>>>, 吳崑의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sup>62)</sup>>>, 清代의

5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 大成文化社 1986 : p.188.

59) 上揭書, pp.183-188.

60)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 pp.129-137.

61)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 一中社, 1992 : pp.118-121.

62)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88 : pp.124-131.

張志總의 <<素問集注<sup>63)</sup>>> 및 近代의 <<黃帝內經素問校釋<sup>64)</sup>>>등의 歷代의 代表的인 注家들의 三部九候의 部位에 對한 見解의 差異를 考察하여 보자.

上部의 天地人 : ① 上部의 天候인 “兩額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懸釐에서 足少陽, 頭維에서 足陽明, <<王注>>에서는 足少陽, <<類經>>에서는 顛厭에서 足少陽, <<吳注>>에서는 巨膠에서 足陽明, <<集注>>에서는 足太陽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類經>>의 顛厭의 足少陽을 따랐다.

그리고 <<素問三部九候論>>는 三才思想이 유행한 西漢의 著作으로 經脈에 穴의 配屬, 流注의 成立, 및 經穴의 交會關係는 성립되지 않았다. 頭頂에는 動脈을 觸知할 수 있는 部位가 없어 兩額의 動脈에서 頭角之氣를 診候하였다고 推測할 수 있으며, <<集注>>에서는 “兩額의 動脈은 頭頂으로 循環하고, 足太陽膀胱經은 ”其經脈上額交顛. 會于腦, 出于項“ 하고 陽을 主宰하여 頭角之氣를 診候할 수 있으

며 上部의 天을 主管한다” 하였다.

② 上部의 地候인 “頰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大迎에서 足陽明, <<王注>>에서는 巨膠에서 足陽明, <<類經>>에서는 地倉, 大迎에서 足陽明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太素>>의 大迎의 足陽明을 따랐다.

그리고 天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部位의 差異는 있지만 足陽明으로 一致된다. 收穀의 柔和之氣의 胃氣는 胃府에서 發生하며 “其經脈起于鼻交頰中, 上入齒中, 還出挾口環唇下” 하여 口齒之氣를 候診한다. 그러므로 大迎의 部位에서 足陽明의 診候가 合當하다 생각된다. <<集注>>에서는 “地는 肌肉에 應하며 足陽明은 土이며 肌肉을 主管하며 天의 地가 된다” 하였다.

③ 上部의 人候인 “耳前之動脈”의 部位와 候診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目後耳前의 和膠에서 手太陽, 手少陽, 足少陽의 三脈, <<王注>>에서는 耳前에서 手少陽, <<類經>>에서는 和膠에서 手少陽, <<集註>>에서는 耳前의 陷谷部位에서 手太陽小腸經으로 보았다. <<校釋>>에서는 和膠와 耳門은 모두 耳前に 있다 하여 <<太素>> <<類

63) 前掲書, 張志總. pp.84-93.

64) 前掲書,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pp.286-302.

經>>를 따랐다.

그리고 耳前에는 手少陽의 耳門, 手太陽의 聽宮, 足少陽의 聽會의 三穴이 있다. 三穴 중에서 手太陽經의 “其經脈上目銳者, 入耳中” 하며 聽宮은 三焦經, 膽經, 小腸經의 三經의 交會穴이며<sup>65)</sup>, <<靈樞經脈>> “手太陽小腸之脈 …… 是主液所生病者 …… 耳聾, 目黃 ……” 하여 小腸手太陽之脈은 液의 生産, 分配를 調節하고, 血을 主管하는 心과 表裏經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集注>>에서 “小腸經의 聽宮에서 診候한다”는 見解도 一理가 있다.

上部の 三候는 頭角之氣를 診候하는 太陽之氣, 口齒之氣를 診候하는 陽明之氣, 耳目之氣를 診候하는 手太陽之氣로 陽을 貯藏하는 形三臟(胃, 膀胱, 小腸) 및 膺, 喉, 頭, 手의 上部의 氣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中부의 天地人 : ① 中부의 天候인 “手太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은 <<太素>>에서는 中部, 雲門, 天府, 俠白의 四處에서 肺氣를 診候, <<王

注>>에서는 掌後의 寸口中의 經渠附近의 動脈處, <<集注>>에서는 兩手의 氣口의 動脈은 手太陰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掌後의 寸口動脈의 肺經의 脈氣가 지나가는 經渠穴處를 따랐다.

그리고 中부의 天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經渠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手太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肺는 乾金에 屬하며 五臟은 肺에 응하고 身體의 氣의 運行을 主管하여 中부의 天을 主宰한다” 하였다.

② 中부의 地候인 “手陽明”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難經>>의 注家인 呂廣의 注를 引用하여 口邊에서 大腸의 氣를 診候, <<類經>>에서는 手의 大指次指의 岐骨間의 動脈處로 合谷附近의 大腸經의 脈氣가 行하는 곳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類經>>을 따랐다.

그리고 中부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合谷穴 附近의 部位와 手陽明經으로 一致된다. <<類經>>에서는 “大腸小腸皆屬于胃, 胃脘通于胸中” 하였고, <<集注>>에서는 “胸中, 膻中也. 宗氣之所取也. 宗氣者, 陽明收穀之所資生. 故地以胸中之氣” 하였고, 陽

65) 安營基, 經穴學叢書, 서울 : 成輔社, 1986 : pp.318-319.

明은 土中에 있어 中部의 地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③ 中部의 人候인 “手少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極泉, 小海의 二處에서 心氣를 診候, <<王注>>에서는 掌後의 銳骨端의 神門穴 附近의 動脈處로 <<靈樞·邪客>> “其外經病而臟不病, 故獨取其經于掌後 銳骨之端”의 處라 하였고, <<集注>>에서는 銳骨端의 動脈으로 手少陰心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王注>>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神門穴 附近의 部位와 手少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三은 人에 應하고, 人은 血脈을 主管한다. 또 心은 血脈의 氣를 主管하고 藏하며 肺下에 있다. 그러므로 中部의 人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中部의 三候는 膈上의 二神臟(肺, 心)과 中土의 二形臟(大腸, 胃)을 診候를 意味한다. 胸中, 膻中은 宗氣가 모이는 場所이며 宗氣는 胃腑에서 資生하므로 地部에서 胸中之氣를 診候한다. 또 張66)은 “大腸小腸皆屬于胃, 胃脘通于胸中” 하여 大腸의 脈에서 胸中

之氣와 胃氣도 兼診할 수 있으며 陽明의 脈은 “下入缺盆, 絡肺貫膈” 하여 胸中之氣를 診候할 수 있다

下部의 天地人 : ① 地部の 天候인 “足厥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曲骨, 行間, 衝門의 三穴의 附近에서 足厥陰, <<王注>>에서는 男은 毛際의 外側 羊矢下 一寸半의 五里穴 附近, 女는 太衝穴 附近에서 肝脈, <<集注>>에서는 五里附近의 動脈處에서 肝脈이라 하였다. <<校釋>>에서는 <<王注>>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天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男子는 五里 附近의 動脈處, 女子는 太衝穴 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厥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厥陰은 陰中の 少陽으로 春節의 生氣를 主宰하므로 下部의 天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② 地部の 地候인 “足少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足少陰의 太谿의 動脈處는 腎氣를 診候, <<集注>>에서는 內踝後의 太谿穴 附近의 動脈處에서 足少陰腎脈을 診候한다 하였다. <<校釋>>에서는 腎經의 脈氣가 지나가는 內踝後의 踝骨側의 太谿附近의 動脈處의 動脈處를 따랐

66) 前掲書, 張介賓, pp.118-121.

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太谿穴 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少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腎은 牝臟으로 下部에 있어 下部의 地를 主管한다 하였다.

③ 地部の 人候인 “足太陰”의 部位와 診候하는 經을 <<太素>>에서는 中府 箕門 五里 陰廣 衝門 雲門의 六處에서 足太陰, <<王注>>, <<類經>> <<吳注>>에서는 箕門附近의 動脈處에서 脾脈, 衝陽附近의 動脈處에서 胃氣를 診候한다 하였다. <<校釋>>에서는 脾經이 지나가는 箕門附近의 動脈處를 따랐다.

그리고 中部의 地候의 見解는 注家들의 意見이 箕門附近의 動脈處의 部位와 足太陰經으로 一致된다. <<集注>>에서는 “脾는 陰臟으로 腹部의 中間에 있어 下部의 人候를 主管한다” 하였다.

下部의 三候에는 膈下의 三神臟(肝, 脾, 腎)을 診候한다. 그리고 上部의 地候에서는 陽明의 陽明早氣 즉 陽熱之氣를 診候하고, 下部의 地候에서는 胃氣는 收穀柔和之氣를 診候한다. 그리고 榮衛氣血은 胃氣에서 資生하고

脾와 胃는 膜으로 相連하여 脾脈에서 胃氣를 診候하고 胃脈에서 脾氣를 診候할 수 있다.

## (2) 三部九候診의 方法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 <<難經>>에는 없으며 <<素問·三部九候論>>, <<素問·寶名全形論>>, <<素問·八正新明論>>, <<素問·離合眞邪論>>, <<素問·繆刺論>>, <<素問·調經論>>, <<素問·四時刺逆從論>>, <<素問·鍼解篇>> 등에서 記載되어 있는 篇數를 보아도 <<素問>>에서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다. 그리고 <<素問·三部九候論>> “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除邪疾” 하여 三部九候診의 意義를 定義하였다.

三部九候診의 決死生은 “觀其形氣, 別其陰陽, 調其血脈, 察其臟腑, 以知死生之期” 하여 身體의 肥瘦와 脈의 大小의 相關關係, 足踝彈診<sup>67)</sup>등으로 不病, 病 및 死證을 區分, 七診死證<sup>68)</sup>

67) 前掲書, 山東中醫學院·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pp.294-297.

“以左手足上去顆五寸按之, 右手當踝而彈之, …… 彈之不應者邪”

68) 前掲書, 楊上善. p.185.

“左手上去踝五寸而按之, 右手直踝

및 四季死證 등으로 生死를 診斷하고, 處百病은 “表裏陰陽, 寒熱虛實之爲病也” 하여 三部九候의 上下左右를 살펴 小大疾遲熱寒陷의 九候에 脉象으로 病邪에 罹患된 臟腑를 찾고, 調虛實은 “實則瀉之, 虛則補之” 의 治法이며, 除邪疾은 “去血脈, 除邪風” 하여 刺絡療法으로 疾病을 治療한다<sup>69)</sup>.

三部九候診을 言及한 <<素問·三部九候論70)>> “必先去其血而後調之”, <<素問·血氣形71)>> “凡治病必善去其血” 의 文句가 있다. 또 <<素問>>의 治療體系의 總論이라 해야 할 <<素問·藏氣法時論72)>>에서도 基本的인 治療法으로 刺絡療法이 記載되어 있다. 이로 보면 三部九候診은 病邪의 罹患에 刺絡療法이 中心이 되고 毫針의 治療가 補助가 되는 治療法에 利用되는 診脈法이다.

특히 上中下の 三部의 關係 중 胃氣를 중시하여 <<素問·三部九候論>> “中部之候雖獨調, 與衆臟相失者死. 中部之候相減者死” 하였다. <<張氏類經·而探之”

69) 前掲書, 張志總. pp.84-93.

70) 前掲書,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p.292.

71) 上掲書, p.340.

72) 上掲書, pp.321-325.

六卷·第二十五注73)>>에서 “中부의 脈과 頭部, 足部の 臟器의 脈이 相失하면 難治이며, 中부의 脈이 上部 下部의 脈보다 減少하면 中氣가 大衰하여 역시 重病이다” 하였다. 또 <<素問·離合眞邪論>> “審捫循三部九候之盛虛而調之…… 調之中部, 以定三部” 하였다. 그리고 吳<sup>74)</sup>는 “三部九候는 胃氣의 衝和作用으로 調節한다” 하였고, 張<sup>75)</sup>은 “三部의 中에는 모두 陽明의 胃氣가 있어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의 交互의 理致가 있다” 하였다.

### 3) 三部九候診의 延變

三部九候診은 現存하는 醫書에서는 단지 <<素問>>에만 있으며 後世에 三部九候診을 행한 醫家를 볼 수 없다. 脈診이 各時代의 醫學의 思想的 背景과 治療方法에 따라 脈診의 活用方法과 部位가 變化할 수 있다고 推論할 수 있다.

<<素問>>의 治療法의 主軸이 刺絡의 方法이다. 三部九候診은 刺絡을 主로 하고 毫針이 補助가 되는 <<素問>>의

73) 前掲書, 張介賓. p.173.

74) 前掲書, 吳昆. pp.166-167.

75) 前掲書, 張志總. pp.84-93.

治療方法에는 有用하며, 毫針의 利用度가 증가하고 漠然한 經絡治療에서 經穴의 縱橫의 構造關係가 확립되어 十二經脈의 三陰三陽에 따른 詳細한 病變現象을 알 필요가 생겼고, 刺絡과 毫針의 治療比率이 비교적 大等한 <<靈樞>>에서는 人迎脉口診이 有用하며, 井榮輸經合의 穴에 五行의 性格을 부여하여 陰陽五行學說을 應用하는 <<難經·六十九難>>에서는 寸口診을 採用하였기 때문에 三部九候診은 점차로 消滅된 것이라 추측된다<sup>76)</sup>.

한편 <<難經·三難77)>>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의 意味를 滑<sup>78)</sup>은 “獨取寸口說의 寸口脈의 寸關尺의 各 部位에 浮中沈으로 <<素問·三部九候論>>의 三部九候診의 三部九候를 收容하였다” 하였고, 張<sup>79)</sup>은 “全身의 三部九候診, <<難經·十八難>>의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 및 仲景診法의 “上의 寸口, 下の 跗陽”의 方法은 三部九候의 動脈을 取하여 臟氣를 診斷하여 邪를 除去하는

方法은 같은 理致다” 하였다.

그리고 張<sup>80)</sup>은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은 <<素問>>의 三部九候診과는 本旨가 同一하지 않다. 上古의 針法은 三部九候의 脈證으로 九臟의 盛衰를 調節하였다. 현재는 穴에서 診斷하므로 經脈의 虛實의 理致가 사라지고 없다.” 하였다.

또, <<素問·三部九候論>>의 足內踝上의 動脈彈診은 <<脈法>>의 “相脉之道” 와 類似하고, <<素問·三部九候論>>의 察九候의 比較脈診法은 <<脈法>>의 “他脈盈 …… 此獨動, 則主病”의 十二經脈脈診의 比較 脈診法에서 延變痕迹을 볼 수 있다<sup>81)</sup>.

<<脈經·卷四·辨三部九候脈證<sup>82)</sup>>>에서 氣口脈의 寸關尺에 天人地の <<難經>>의 三部九候論에 浮, 沈, 牢, 結, 遲, 疾, 滑, 澁脉에 따라 證을 分類하고 命門, 四時脉 및, 尺膚診과 結合하여 三部九候診이 運用되었다. 또 <<脈法>>에는 言及이 없는 身體의 肥瘦와 脈의 大小에 따른 形氣의 虛實을 觀察하는 方法은 <<千金翼方·色脈·脈診大

76) 前掲書, 羅慶燦. p.2(1), pp.99-100.

77) 前掲書, 何愛華. pp.26-29.

78) 前掲書, 滑壽. pp.6-8.

79) 前掲書, 張介賓. p.119.

80) 上掲書, p.119.

81)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pp.274 - 320.

8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44-163.



意<sup>83)</sup>>>에 人의 大小, 長短, 性質의 緩急 및 形의 苦樂으로 擴大되어 脈診에 收容되었다. 또한,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診斷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의 概念이 結合되어 氣口脈에서 運用할 수 있으며 <<診家樞要>>에서 “病脈이 上部에 있으면 上病, 下部에 있으면 下病, 左部에 있으면 左病, 右部에 있으면 右病이다.” 하였다<sup>84)</sup>.

그리고 <<脉經·卷十·手檢圖>> 에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이 記載되어 있으며 氣口九道脈의 部位를 <<素問·脈要精微論>>의 尺部診의 臟腑의 定位方法과 같은 內外의 用語로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部位를 定位한 것은 <<難經·三難>>에 三部九候診을 寸關尺의 浮中沈으로 解釋한 方法을 應用한 것으로 보이며 <<身經通考<sup>85)</sup>>> <<醫編<sup>86)</sup>>> <<雜病原流犀燭<sup>87)</sup>>> 등에서는 氣口九道脈의 內外

의 의미를 脈의 浮沈으로 解釋하였다.

### 3. 人迎寸口診

#### 1) 寸口脈 人迎脈의 部位

<<素問>>, <<靈樞>>, <<黃帝內經太素<sup>88)</sup>>>에서는 人迎脈은 胸鎖乳突筋의 앞부분 頸動脈의 足陽明胃經의 人迎穴의 動脈處를 指稱하였고, 氣口脈은 手太陰肺經上의 手腕關節에서 尺部사이의 太淵穴의 高骨下의 動脈의 搏動處를 寸口脈이라 하였다.

한편 <<脈經<sup>89)</sup>>>에서 左手의 寸關尺의 關部를 人迎脈, 右手의 寸關尺의 關部를 氣口脈이라 하였고, <<脈訣<sup>90)</sup>>>에서 左手의 人迎脈에서 外感의 溫風寒을 診斷, 右手의 氣口脈에서 內傷의 燥濕暑를 診斷한다고 하였으며, <<內外傷辨惑論·辨脈<sup>91)</sup>>>에서 左

83) 前掲書, 李景營, pp.385-386.

“人大而脈小, …… 人壯而脈細, 人羸而脈大, …… 逆則難治, 反此爲順, 則爲易治.”

84) 前掲書, 張山雷, pp.349-350.

85) 李漢,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p.171-174.

86) 何夢瑤,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07-511.

87) 沈金鰲, 雜病原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88) 前掲書, 楊上善, pp.198-209.

89) 前掲書, pp.16-17.

90) 王叔和撰·張世賢註, 校正圖註脈訣, 서울: 醫道韓國社, 1976: 卷之三, p.一.

91) 李東垣, 東垣醫集·內外傷辨惑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9-10.

手를 人迎、右手를 寸口라 하여 內傷과 外感을 區別하였다.

明代 <<景岳全書<sup>92)</sup>>>에서 左手人迎脈과 右手氣口脈을 <<素問>>、<<靈樞>>의 各篇은 寸口人迎脈은 左右의 區分이 아니라 上下의 理致로서 內容과 意味를 分析하여 批判하였고, <<醫宗必讀<sup>93)94)</sup>>>에서 左手人迎脈과 右手氣口脈을 病因의 診斷領域에 關하여 批判하였다고, 清代의 <<四診抉微<sup>95)</sup>>>와 <<醫宗金監<sup>96)</sup>>>에서 左手人迎脈、右手氣口脈은 <<內經>>의 經旨에 反하며 “自晉至今, 以訛傳訛”라 評價하였다.

이에 關하여 清代 <<醫碕<sup>97)</sup>>>에서 人迎脈은 頸의 部位, 寸口脈의 手の 部位가 <<內經>>의 意味에 附合하지 單, 後世에는 古代의 三部比較脈診法을 廢棄하였기 때문에 左手의 關脈을 人迎脈, 右手의 關脈을 氣口脈으로 改修하였으며 “經義無異, 部位不同”을

指摘하였다.

그러나, <<內經>>의 人迎脈은 頸動脈의 搏動處인 足陽明胃經의 人迎穴 部位를 意味하며, 寸口脈은 手太陰肺經의 太淵穴 部位의 動脈의 搏動處가 漢代의 寸口人迎脈診에 附合하며, 人迎寸口診의 部位의 差異에 있어 上의 人迎脈, 下의 寸口脈의 概念은 十二經脈의 三陰三陽論의 運用에 適合한 陰陽脈診法으로 보고, 左手의 人迎, 右手의 氣口脈의 概念은 獨取寸口說의 疾病의 內, 外因의 區分, 七情 및 飲食傷의 區別에 適合한 五行脈診法으로 보면 人迎寸口診의 上下, 左右部位의 差異點을 理解할 수 있다.

## 2) 平人의 定義

脈口와 人迎의 兩側脈은 五臟의 陰과 六腑의 陽의 虛實과 盛衰를 살피 볼 수 있어 人體陰陽의 平衡維持의 與否로 이해할 수 있으며, 寸口、人迎脈診은 頸動脈의 人迎脈인 陽明脈의 陽明의 氣와 撓骨動脈의 氣口脈인 太陰의 氣를 比較하여 盛衰가 없이 搏動이 계절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脈象을 陰陽의 有餘와 不足이 없는 正常狀態로 疾病이 없는 平人으로 정의하였

92) 前掲書, 張介賓. p.79.

93)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 中國書店出版, 1987 : 卷二 p.二.

94) 吳忠祥王永宏. 醫宗金監四診心法要訣註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8 : p.45.

95) 前掲書, 林之澗. pp.83-84.

96) 吳謙. 醫宗金監(中), 서울 : 大星出版社, 1983 : p.185.

97) 前掲書, 何夢瑤. pp.500-501.

다.

平人是寸口、人迎脈의 脈搏과 躁動의 差異가 없으므로 <<太素·人迎脈口診>> “二人共引一繩，彼牽而去，其繩并去，此引而來，其繩并來。寸口人迎，因呼吸見脈往來，其動是同。故曰齊等也。” 하여 人迎脈과 寸口脈이 呼吸에 따라 脈動이 大等하게 搏動하는 사람을 無病한 平人이라 하였고, <<靈樞·終始>>에서는 “脈口人迎應四時也，上下相應而俱往來也，六經之脈不結動也，本末之寒溫相守司也，形肉血氣必相稱也，是謂平人” 하여 四時の 季節에 따라 人迎脈과 寸口脈이 大等하게 搏動하고, 脈動과 人體內외의 體溫이 一致하고, 脈診과 身體의 肥瘦에 따른 氣血의 狀態가 一致하는 사람을 平人으로 定義하였다.

그리고, <<內經>> 以後에 平人에 관하여 <<脉經·卷五·扁鵲脈法<sup>98)</sup>>> “扁鵲曰，平和之氣。不緩不急，不滑不澁，不存不亡。不短不長。不俯不仰，不縱不橫，此爲平脈。” 하여 不偏倚한 脈이라 하였고, <<脈學輯要<sup>99)</sup>>> “平脈不一 …… 一

息五至，息數之平。弦洪毛石，四時之平也。而人稟賦不同，脈亦不一其形，此乃稟受之平也” 하여 稟賦에 따라 多樣한 形象의 平脈이 있을 수 있다하였고, <<脈學正義<sup>100)</sup>>> “不大不小，不疾不遲爲平脈也” 하여 ‘和平不病之脈’ 으로 正義하였고, <<三指禪<sup>101)</sup>>>에서 “和緩爲宗，緩卽爲胃氣也” 하여 緩脈을 모든 脈의 中心으로 平價하였다.

### 3) 十二經脈에서 疾病所在, 虛實의 診斷

<<靈樞·終始>>에 依하면 寸口、人迎脈의 比較에 따라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一倍 盛하면 足少陽에 疾病이 있으니 瀉足少陽 補足厥陰하며, 一盛하고 躁動하면 陽中の 陽이므로 手少陽에 疾病이 있으니, 瀉手少陽 補手厥陰하여 二瀉一補하고 一日一回 治療한다. 또한 <<靈樞·經脈>>에 依하면 人迎脈이 寸口脈에 比하여 一倍 盛하면 實證이고, 人迎脈이 寸口脈보다 小하면 虛症이다 하였다. 나머지 十一經도 이에 準하여 類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8) 前掲書, 福州市人民醫院. pp.232-233.

99) 丹波元堅. 脈學輯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

100) 前掲書, 張山雷. p.363.

101) 周學靈. 三指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7-8.

다.

寸口人迎脈診에 依하여 盛衰 및 脉象에 따라 疾病의 所在 및 虛失을 把握하여 一倍、二倍、三倍의 過度하지 않은 疾病은 단지 輕重에 불과하므로 病의 本末을 살피고, 熱을 分別하고, 疾病의 臟腑所在를 明確히 하여야 한다.

#### 4) 人迎寸口脈診의 延變

人迎氣口診은 寸口脈과 人迎脈의 盛衰比較와 脉象을 通하여 按診하는 陰陽脈診法으로 <<素問·脈要精微論>>、<<素問·陰陽別論>>、<<素問·六節藏象論>>、<<靈樞·終始>>、<<靈樞·禁服>>、<<靈樞·五色>>、<<靈樞·論疾診尺>>등에서 寸口人迎脈診의 意義、季節에 따른 脈의 變化、平人의 脈候、鍼灸補瀉法、脈候에 따른 針灸·刺絡·藥物 등에 관한 治療方法이 記載되어 있다.

<<難經>>에서는 人迎氣口診의 意義를 <<難經·二十三難>> “經脈十二，絡脉十五 …… 朝于寸口，人迎，以處百病，以決死生也， …… 終始者，脉之紀也。寸口，人迎，陰陽之氣通于朝使， ……” 하여 寸口와 人迎脈으로 陰陽의 氣을 살

피고 疾病을 診斷하여 生死를 區分할 수 있다 하였고, <<難經·三難>> “脈有太過，脈有不及 …… 有覆有溢，有關有格，何也？ 然，關之前者，陽之動也。 …… 關之後者，陰之動也。 ……” 하여 氣口脈의 寸關尺의 關部の 前은 陽部位이고, 關部の 後는 陰部位로서 寸部와 尺部를 比較診斷하여 陰陽의 太過 및 不及을 區分하였다.

滑<sup>102)</sup>은 “<<難經·三難>>은 <<素問>> <<靈樞>>의 關格의 診斷 脈診法의 人迎寸口脈診의 意味를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에 收容하였다” 하였고, 葉<sup>103)</sup>은 “人迎脈은 寸口脈의 根이 되고 寸口脈은 人迎脈의 幹이 되며 根幹은 相通하여 寸口脈에서 人迎脈을 살필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陳<sup>104)</sup>은 “漢代의 寸口人迎脈診은 疾病의 內·外因을 區分하는 脈診方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하였다.

### Ⅲ. 考 察

102) 前掲書, 滑壽. pp.6-8.

103) 前掲書, 葉霖. pp.6-7.

104) 陳無擇. 陳無擇三因方,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8: 卷一 p.14.

최근 經脈의 起源에 관한 說에서는 先秦時期에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視之可見” 할 수 있는 靜脈의 觀察에서 始作하여 秦漢代에 <<素問·離合眞邪論>> “捫而循之 …… 彈而怒之” 등의 “切之可得” 하여 具體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血管과의 相關性を 提起하고 있다<sup>105)</sup>. 그리고 經脈과 血管에 대한 假說은 先秦, 秦 및 漢代의 醫家의 ‘脈’ 에 對한 認識의 穿鑿이 要求된다<sup>106)</sup>.

先秦時期의 ‘脈’ 의 意味는 經脈과 脈診의 概念이 混再된 用語이었다. 脈診은 經脈의 發見과 形成初期의 經脈 循診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 中에서 萌芽하였것으로 생각되며 漢代에 經脈과 絡脈의 發見이 促進되어 經絡의 概念이 成立하고 또 脈學의 飛躍的인 發展으로 脈은 經脈의 ‘脈’ 에서 脈診의 ‘脈’ 의 意味로 代替되어 西漢初期에 脈學은 學問的으로 獨立되었다<sup>107)</sup>.

脈診의 起源은 B.C 5 世紀로 遡及

105) 前掲書, 嚴建民, p.122, pp.137-145. pp182-185.

106) 前掲書, 龍伯堅, p.41.

107)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pp.22 - 27

되고 東漢時代의 <<淮南子·泰族訓 篇>>에 扁鵲이 脈診으로 病의 部位를 診斷한 記錄이 있으며<sup>108)109)</sup>, <<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黃帝扁鵲之脈書>>의 脈學에 對한 專門書籍이 記載되어 있다<sup>110)</sup>. 그리고 倉公 醫案에는 寸口診으로 病症을 診斷하여 生死를 구분한 記錄이 있으며<sup>111)</sup> 馬王堆 漢墓 (B.C 168년)의 出土 醫書 가운데 <<足臂>> <<陰陽>>의 灸經, <<脈法>> 및 <<陰陽脈死候>>는 經脈, 脈診과 治療 및 豫後에 關한 最初의 醫籍이다<sup>112)</sup>.

古代의 脈診에 關하여 滑<sup>113)</sup>은 <<難經本義·難經彙考>> “古人之於脈, 其察之固非一道矣; 然今世通行唯寸關尺之法爲最要” 하여 古代의 脈診의 方法은 多樣하다 하였고, 騰<sup>114)</sup>은 “凡診脈之法, 靈素所述皆非一道” 하였고,

108) 劉冠軍, 脈診, 台北: 啓業書局, 1985: p.6.

109) 前掲書, 黃世林·孫明異, p.1

110) 前掲書, 龍伯堅, pp.3-6.

111)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89-94.

112)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pp.274 - 320.

113) 前掲書, 滑壽, pp.32.

114) 前掲書, 騰萬卿, p.1.

徐<sup>115)</sup>는 “《素問》 《靈樞》에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 寸口診 등의 脈診法이 있다” 하였다.

그리고 脈診의 方法으로 《內經》에서는 十二經脈脈診, 人迎氣口診, 三部九候診, 尺膚診, 氣口脈診 등이 있으며, 《難經》에서는 氣口脈診, 三部九候診,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및 五十動法 등이 있으며,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에서 氣口脈診, 趺陽脈診, 太谿脈診 등이 있다.

清代의 唐<sup>116)</sup>은 “察脈知病, …… 《內經》, 仲景, 皆合人迎趺陽合診, 今獨取寸口, 蓋去繁就簡, ……” 하여 診斷의 方法은 複雜한 方法에서 簡便한 方法으로 發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馬<sup>117)</sup>는 “《黃帝內經》의 寸口診, 三部九候診, 寸口人迎診과 《傷寒論》에서 寸口, 趺陽의 比較診脈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影響을 받아 發展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羅<sup>118)</sup>는 “《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黃帝, 扁鵲의 二 種類의 脈

書가 記載되어 있으며 《黃帝脈書》는 十二經動脈診 → 三部九候診 → 寸口人迎診의 經脈脈診으로 延變되었고, 《扁鵲脈書》의 寸口診은 二大原流의 脈診의 融合을 試圖하여 《難經》 《脈經》에서 寸關尺의 六部定位脈法이 完備되었다” 하였다, 徐<sup>119)</sup>는 “《難經》의 獨取寸口說은 ‘精而不略’ 한다” 하였다.

이에 論者는 《黃帝脈書》의 十二經脈脈診 → 三部九候診 → 寸口人迎脈診의 經脈脈診法의 形成過程과 延變, 經脈學說과 脈診의 關係 및 脈診의 方法에 따른 針灸刺絡 등의 治療方法의 變遷緣由을 살펴보는 것은 經脈學說의 理解 및 脈診을 이용한 經脈治療方法의 研究에 重要한 過程으로 생각된다.

첫째, 十二經脈脈診은 古醫籍의 記載는 없으며 經脈의 發見과 形成의 初期에 經脈楯診에서 各 經脈의 搏動處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中에서 萌芽한 概念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難經·一難》 “十二經皆有動脈” 하고,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sup>120)</sup>》 “手足三陰三陽十二經皆有動脈” 하여

115) 前掲書, 徐靈胎. p.7.

116)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p.59.

117) 前掲書,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pp.274 - 320.

118) 前掲書, 羅慶燦. p.2(1), pp.99-100.

119) 前掲書, 徐靈胎. p.7.

120) 前掲書, 李景營. p.385.

十二經脈에는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推斷할 수 있다. 丁<sup>121)</sup>은 “手足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天地의 陰陽이 通하고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여 十二經의 動脈處에서 百病을 診斷하고 生死를 鑑別할 수 있다” 하였고, 張<sup>122)</sup>은 “各 經脈의 搏動處에서 本 經脈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陰陽十一脈灸經>>의 各各의 經脈은 “是僮則病”의 文句가 있으며, 劉<sup>123)</sup>는 “<<靈樞·經脈>>의 “脈之 卒然動者, 皆邪氣居之”와 “是動則病”은 ‘某’ 脈의 搏動部位가 動하면 ‘某’ 經의 病이다” 하였고, <<靈樞·經脈>> “不與衆動, 是以知其何脈之病也” 하여 經脈의 按診處에서 病邪에 罹患된 經脈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으며<sup>124)</sup><sup>125)</sup>, <<脈法>>에는 比較脈診즉 “相脈”과 刺絡, 灸 등의 治療方法을 記載하고 있다.

그러나, 十二經脈脈診은 . 煩雜하여

121) 前掲書, 王九思, pp.5-10.

122) 前掲書, 張山雷. p.58.

123)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夏門: 夏門大學出版社, 1989 : p.70.

124) 前掲書, 河北中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上). pp.264-266.

125) 前掲書, 張山雷. p.58.

醫家들이 間斷하고 臨床에서 有用한 方法 즉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脈診, 寸口診 등이 운용하게 되었고 <<傷寒論>> <<金匱要略>> <<脉經>>에 十二經脈의 按診處에서 診斷의 意義性과 쉽게 觸知할 수 있는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足少陰의 太溪脈 등이 運用이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二十餘의 動脈處는 十二經脈의 經穴部位에서 “動脈應手”는 經穴 眞僞를 살피는 取穴法으로 이용되었다<sup>126)</sup>.

둘째,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 <<難經>>에는 없으며 <<素問>>의 人迎脉口診, 寸口診, 三部九候診 中 가장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며, 天人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十二經脈脈診을 더욱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張<sup>127)</sup>은 “三部九候診은 三部의 中에는 모두 陽明의 胃氣가 있어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의 交互의 理致로 十二經脈, 肝心脾肺腎의 神五臟 및 胃小腸大腸膀胱의 形四臟의 三部의 氣를 診斷하여 針治療를 하고, 三部의 脈을 診斷하여 生死를 구분하는 診法이다” 하

126) 前掲書, 徐靈胎. p.7.

127) 前掲書, 張志總. pp.84-93.

였다.

三部九候診에는 <<脈法>>에 없는 身體의 肥瘦에 따른 形氣의 虛實의 診斷概念은 <<千金翼方·色脈·脈診大意<sup>128)</sup>>>에 人의 大小, 長短, 性質의 緩急 및 形의 苦樂으로 擴大되어 脈診에 收容되었고,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診斷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의 概念을 滑<sup>129)</sup>은 <<診家樞要>> “病脈이 上部에 있으면 上病, 下部에 있으면 下病, 左부에 있으면 左病, 右부에 있으면 右病이다.” 하여 氣口脈에서도 運用할 수 있다하였다.

足內踝上의 動脈彈診을 全<sup>130)</sup>은 命門을 診斷한다 하였고, 黃<sup>131)</sup>은 手足少陰의 神門, 太谿의 二穴의 脈을 通하여 血管의 彈力度로 豫後를 診候한

128) 前掲書, 李景營. pp.385-386.

“人大而脈小, …… 人壯而脈細, …… 此皆爲逆. 逆則難治, 反此爲順, 則爲易治.”

129) 前掲書, 張山雷. pp.349-350.

130) 上掲書, p.57.

<<甲乙經>> 及 全元起注에서 “左手于足上去踝五寸而按之, 右手當踝而彈之” 하였고 全元起注에서 “內踝之上, 陰交之出, 通于膀胱, 系于腎, 腎爲命門, 是爲取之” 하였고 …… 陰交 즉 三陰交는 足少陰, 足太陰, 足厥陰의 三經이 出하므로 古人이 重視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1)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素問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

다 하였고, 張<sup>132)</sup>은 生陽之氣로 生死를 診斷하며 諸陽을 主管하는 太陽之氣의 診候方法으로 論述하였다. 이는 <<脈法>>의 “相脈之道”의 方法과 同一하다. <<素問·三部九候診>>과 聯關된 여러篇의 治療法은 刺絡療法으로 大量 出血의 防止 및 豫後를 위한 診斷의 方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의 察九候는 <<脈法>>의 比較 脈診法에서 延變痕迹을 볼 수 있다.

한편, <<難經·十八難>>에는 三部九候診을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에 收容하였고, 張<sup>133)</sup>은 “全身의 三部九候診, <<難經·十八難>>의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 및 仲景診法의 上の 寸口, 下の 跗陽의 方法은 三部九候의 動脈을 取하여 臟氣를 診斷하여 邪를 除去하는 方法은 같은 理致이다” 하였다. 그리고 張<sup>134)</sup>은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法은 <<素問>>의 三部九候診과는 本旨가 同一하지 않다. 上古의 針法은 三部九候의 脈證으로 九臟의 盛衰를 調節하였다. 현재는 穴에서 診斷하므로 經脈의 虛實의 理致가 사

132) 前掲書, 張志總. pp.84-93.

133) 前掲書, 張介賓. p.119.

134) 上掲書, pp.119-121.



라지고 없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은 針과 藥에도 適用할 수 있다.” 하였다.

<<脈經·卷四·辨三部九候脈證<sup>135)</sup>>>에서 氣口脈의 寸關尺에 天人地の <<難經>>의 三部九候論에 浮, 沈, 牢, 結, 遲, 疾, 滑, 澁脈에 따라 辨證을 分類하고 命門, 四時脈 및 尺膚診과 結合되어 三部九候診을 運用하였고, <<脈經·卷十·手檢圖>>의 奇經八脈의 脈診인 氣口九道脈은 <<難經>>의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診을 利用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部位를 定位하여 運用하였다.

셋째, 人迎氣口診은 寸口脈과 人迎脈의 盛衰比較와 脈象을 通하여 按診하는 脈診法으로 <<素問·脈要精微論>>, <<素問·陰陽別論>>, <<素問·六節藏象論>>, <<靈樞·終始>>, <<靈樞·禁服>>, <<靈樞·五色>>, <<靈樞·論疾診尺>>등에서 寸口人迎脈診의 意義, 季節에 따른 脈의 變化, 平人의 脈候, 鍼灸補瀉法, 脈候에 따른 針灸刺絡·藥物 등에 관한 治療方法이 記載되어 있다.

<<難經>>에서 人迎氣口診의 意味를 <<難經·二十三難>> “經脈十二, 絡脈十五 …… 朝于寸口, 人迎, 以處百病, 以

決死生也, …… 終始者, 脈之紀也. 寸口, 人迎, 陰陽之氣通于朝使, ……” 하여 寸口와 人迎脈으로 陰陽의 氣을 살피고 疾病을 診斷하여 生死를 區分할 수 있다하였고, <<難經·三難>> “脈有太過, 脈有不及 …… 有覆有溢, 有關有格, 何也? 然, 關之前者, 陽之動也. …… 關之後者, 陰之動也. ……” 하여 氣口脈의 寸關尺의 關部の 前은 陽部位이고, 關部の 後는 陰部位로서 寸부와 尺部를 比較診斷하여 陰陽의 太過 및 不及을 分別한다 하였다.

<<難經·三難>>의 意味를 滑<sup>136)</sup>은 <<素問>> <<靈樞>>의 人迎寸口診를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法에 收容의 根據로 보았고, 葉<sup>137)</sup>은 人迎脈은 寸口脈의 根이 되고 寸口脈은 人迎脈의 幹이 되며 根幹은 相通하여 寸口脈에서 人迎脈을 살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宋代의 陳<sup>138)</sup>은 “漢代의 寸口人迎脈診은 疾病의 內·外因을 區分하는 方法으로 認識하는 것이 脈學 研究의 要旨이다” 하였고, 羅<sup>139)</sup>는 “寸口人迎脈診은 五臟六腑의 複雜한 病理

136) 前揭書, 滑壽. pp.6-8.

137) 前揭書, 葉霖. pp.6-7.

138) 前揭書, 陳無擇. 卷一 p.14.

139) 前揭書, 羅慶燦. p.2(1), pp.99-100.

135) 前揭書, 福州市人民醫院. pp.144-163.

상태를 밝혀내기가 어렵고 豫後判斷에 重視되었고 治療의 指針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점차 衰退하였다” 하였고, 王140)은 “寸口人迎脈診이 <<內經>>에서 反復하여 言及된 점으로 보아 秦漢時代에 盛行한 診斷技術이며 脈象의 一盛 二盛 三盛과 經脈의 特定한 關係를 確定시킨 것은 理解가 어렵고 解釋할 수가 없어 臨床實踐하는 과정에서 점차 淘汰되었다. 그러나 人迎氣口診은 病邪의 表裏, 陰陽의 所在와 屬性을 區別하는데 一定한 意味가 있다” 하였다.

한편 脈診의 延變은 <<史記扁鵲倉公列傳>>과 <<馬王堆·醫書>>에서 推論을 始作하여 볼 수 있다. 倉公은 B.C 2 世紀 頃에 陽慶으로부터 <<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 <<揆度>>등의 脈診과 診斷의 書籍을 傳受하였고141), <<史記·扁鵲倉公列傳>>의

14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p.12-13.

141) 前揭書, 龍伯堅. pp.3-6.

<<五色診>>은 <<素問玉版論要論>>에서 설명한 <<五色>>의 概論과 同一한 內容으로 볼 수 있으며 <<素問玉版論要論>>에는 <<五色>> <<脈變>> <<揆度>> <<奇恒>> 등의 古代의 書名이 記載되어 있다. <<揆度>>는 <<素問玉版論要論>> “<<揆度>>者 度病之深淺也” 하였고 <<素問病能論>> “<<揆度>>者, 切度之也. 所爲揆者, 方

倉公 醫案의 脈診은 寸口診으로 <<扁鵲脈書>>는 寸口脈의 寸關尺部를 運用하는 脈診으로 볼 수 있다142). 그리고 <<脈經·卷五143)>>의 扁鵲脈法의 四篇의 內容은 <<五色診>> <<揆度>> 및 <<難經>>과 聯關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倉公의 醫學를 傳受받은 醫家들은 氣口脈의 寸關尺 六部定位脈診法에 馬王堆 出土의 <<足臂>> <<陰陽>>의 灸經 및 <<脈法>> <<陰陽脈死候>> 와 <<素問>> <<靈樞>>의 經脈脈診의 十二經脈脈診, 三部九候診, 人迎脈口診 등의 方法과 意義를 收容하여 脈診方法의 統一을 試圖하였다. 何144)145)는 “<<難經>>은 倉公의 醫學를 繼承한 西漢의 齊派의 醫藥家들의 著作으로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이 經脈脈診을 融合하여 脈診을 代表할 수 있는 脈診에 對한 醫論이 <<難經>>의 脈學篇에 記載되어 있다” 하

切求之也, 言切求其脈理也. 度者, 得其病處, 以四時度之也.” 하였다. 이를 보면 <<揆度>>는 豫後를 判斷하는 診斷書籍으로 볼 수 있다.

142) 前揭書, 金富煥. pp.89-94.

143) 前揭書, 福州市人民醫院. pp.223-245.

144) 前揭書, 何愛華. pp.295-307.

145) 前揭書, 南京中醫學院 校釋. pp.58-59.

였다.

그리고 <<難經>>以後의 醫家들은 <<素問>> <<靈樞>>의 三部九候診, 人迎氣口診등의 脈診意味를 收容할 수 있고, 五臟을 五行의 概念으로 認識하여 五行의 相生, 相剋 및 相侮의 理論으로 五臟間에 轉變하는 病理變化를 脉象의 變化로 觀察하여 治療에 運用이 可能하고, 輕重法, 季節의 春弦 夏鉤 秋毛 冬石의 脉象, 節氣에 따른 六經脈, 脈搏의 至·損脈, 五十動 및 六十數등의 理論의 方法을 收容하여 運用할 수 있는 手太陰의 太淵穴 部位의 寸口脈의 寸關尺 六腑定位脈診法을 代表的인 脈診方法으로 運用하였다. 그리고 張<sup>146)</sup>은 <<難經>>의 獨取寸口說을 脈學의 發展史에 새로운 里程標로서 “百世不祧之大經大法”하여 높이 評價하였다.

脈診이 各 時代의 醫學의 思想的 背景과 治療方法에 따라 脈診의 活用方法과 部位가 變化할 수 있으며 또 하였다고 推論할 수 있다. 또 現在 혹 未來의 脈診의 變化도 類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假定에서 19세기 朝鮮에서 胎動된 體質醫學은 漢代부터 金, 元, 明, 清代까지의 東洋醫學의 傳

統을 包括하면서 既存의 東洋醫學의 觀點으로 人體를 觀察하여 治療하는 方法에 革新的 變化를 가져 왔다.

특히 李濟馬가 創案한 方劑爲主의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體質醫學과 20세기 대한민국에서 權度沅이 創案한 針治療爲主의 八體質醫學은 <<難經>>以後의 氣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을 遵用하지 않는다. 그리고 八體質醫學에서는 八體質을 區分하는 八體質脈을 闡發하여 臨床에서 準用하고 있다. 이는 B.C 2세기부터 A.D 21세기까지 運用하고 있는 寸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에 對한 많은 것을 示唆한다.

## IV. 結 論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難經一難>>에서의 十二經脈의 變動을 觸診하는 ‘十二經脈脈診’, <<素問·三部九候論>>에서 人體를 上中下·天人地의 九候를 診脈하는 ‘三部九候診’ 및 <<靈樞經脈>> <<靈樞終始>>에서의 足陽明胃經의 人迎脈과 手太陰

146) 前掲書, 張山雷. p.57.

肺經의 寸口脈을 비교하는 ‘人迎寸口診’ 등의 經脈診斷의 比較 脈診法에 관하여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十二經脈脈診

1) 十二經脈脈診은 古醫籍의 記載는 없으며 經脈의 發見과 形成의 初期에 經脈楯診의 過程중에서 經脈의 走行을 確認하는 過程 中에서 萌芽한 概念으로 생각된다.

2) 先秦의 著作인 <<陰陽十一脈灸經>>의 各各의 經脈은 “是僮則病”의 文句가 있으며, 西漢의 著作인 <<難經一難>>에서 “十二經皆有動脈” 하여 各 經脈을 按診하는 動脈處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清代 <<難經洄注箋正>>에서 各 經脈 搏動의 診脈處는 本經의 寒熱虛實을 살필 수 있고, <<脈法>>에는 比較脈診의 기록인 “相脈”의 方法으로 刺絡, 灸 등의 治療方法이 있다.

3) 十二經脈脈診은 煩雜하여 間斷하고 臨床에 有用한 三部九候診, 人迎寸

口脈診 등을 運用하게 되었고, 診斷의 意義와 觸知가 쉬운 胃氣의 機能과 聯關된 手太陰의 氣口脈, 足陽明의 人迎脈, 跗陽脈 및 命門의 機能을 按診하는 足少陰의 太溪脈 등은 <<傷寒論>> <<金匱要略>> <<脉經>> 등의 醫籍에 運用 事實이 記載있다.

4) 十二經脈의 動脈處 中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足陽明의 人迎穴, 足少陰의 太谿穴의 3곳의 動脈處를 除外한 部位는 經穴의 眞僞를 살피는 “動脈應手”의 取穴法으로 利用되었다.

### 2. 三部九候脈診法

1) 三部九候診은 <<素問>>에만 나타나고 <<靈樞>> <<難經>>에는 없으며 <<素問>>의 人迎脉口診, 寸口診, 三部九候診 中 가장 比重이 있는 脈診法이며, 天人地의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十二經脈脈診을 簡便化시킨 方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은 “人有三部, 部有三候, 以決死生, 以處百病, 以調虛實, 以除邪疾” 하는 整體 診察法으로 針과 藥에 동시에 適用할 수 있다.

2) 三部九候診의 上部의 三候는 胃, 膀胱, 小腸의 形三臟 및 膈, 喉, 頭, 首의 上部의 氣를 診候하고, 中部의 三候는 膈上의 二神臟과 中土의 二形臟을 診候와 大腸脈에서 胸中之氣와 胃氣를 兼診하고, 下部의 三候에는 膈下의 三神臟을 診候하고 脾와 胃는 膜으로 相連하여 胃氣는 脾脈에서 胃氣, 胃脈에서 脾氣를 診候한다. 그리고 三部九候의 三部의 中에는 胃氣의 作用으로 天地人의 三者는 上下交互의 作用이 있다.

3) 三部九候診은 豫防醫學을 重視하고 一陽一陰의 表裏經을 運用하는 <<素問>>의 刺絡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며, 人迎氣口診은 陰陽脈診法으로 三陰三陽의 運用에 따른 刺絡療法의 利用度가 높고 毫針의 利用度가 높은 <<靈樞>>의 治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며, 寸關尺의 六部定位脈診은 井榮輸經合의 穴에 五行의 性格을 附與하여 陰陽五行學說을 應用하는 <六十九難>의 治療法에 有用한 脈診法이다. 이는 時代에 따른 醫學의 思想的 背景 및 治療方法의 改變에 따라 三部九候診은 점차로 消滅된 것이라 추측된다

4) 三部九候診에서 足內踝上의 動脈彈診은 <<脈法>>의 “相脉之道” 와 類似하고, 察九候의 方法은 <<脈法>>의 比較 脈診法의 延變痕迹을 볼 수 있으며, <<脈法>>에 없는 身體의 肥瘦에 따른 氣의 虛實의 概念은 <<千金翼方>>에서 脈診大意로 擴大되었다. 그리고 三部九候診의 上下左右의 脈診概念과 <<素問·脈要精微論>> “上竟上, 下竟下” 의 脈診概念은 寸口脈에서도 適用하여 運用이 可能하다.

5) 三部九候診은 <<難經·十八難>>의 寸口脈의 六部定位脈診法에 寸關尺의 浮中沈의 三部九候로 收容되었고, <<脈經·卷四·辨三部九候脉證>>에서 <<難經>>의 三部九候診에 浮, 沈, 牢, 結, 遲, 疾, 滑, 澁脉에 따라 證을 分類하고 命門, 四時脉 및 尺膚診과 結合하여 運用하였다. 또 <<脈經·卷十·手檢圖>>의 奇經八脈의 診斷法인 氣口九道脈의 運用에 <<難經>>의 三部九候診의 方法이 利用되었다.

### 3. 人迎氣口脈診法

1) 人迎氣口診의 人迎脈은 頸動脈의 搏動處인 足陽明胃經의 人迎穴 部位, 寸口脈은 撓骨動脈의 搏動處인 手太陰肺經의 太淵穴 部位로 보는 것이 <<內經>>의 寸口人迎脈診의 經旨에 附屬한다.

2) 人迎氣口診은 人體陰陽의 平衡維持의 與否로 病人과 無病한 平人을 진단하여 平人을 定義한 것은 疾病의 診斷의 意味뿐 만 아니라 脈診의 意義를 擴大하여 後代 脈學의 不病한 和平之脈의 認識에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3) 人迎氣口診은 疾病의 恢復과 惡化를 살피는 方法의 診脈法일 뿐만 아니라 十二經脈의 診斷에 應用하여 人迎 氣口脈의 盛衰 및 脈象에 따라 針、藥、灸、刺絡과 補瀉法 등 多樣한 治療方法을 利用할 수 있다.

4) 人迎氣口診은 <<難經·三難>>에 氣口脈의 寸尺의 陰陽法으로 收容되었고, <<脈經>> <<脈訣>> 등에서는 左手의 關前 一分을 人迎脈, 右手의 關前 一分을 氣口脈으로 人迎氣口診의 部位를 改變하여 疾病의 內外因 및 七

情 飲食傷의 區分에 運用하였다.

5) 人迎氣口診은 疾病의 內因 外因의 區別, 病邪의 表裏陰陽의 所在 및 屬性의 鑑別에 有用한 脈診法으로 運用하는 것이 診斷的 意義가 있다.

## V. 參考文獻

1. 馬繼興. 馬王堆醫學文化, 上海 : 文匯出版社, 1994.
2. 黃世林·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3. 金富煥. 倉公傳에 나타난 秦漢 醫學思想 研究, 東國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6. 周一謀·肅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7. 羅慶燦. 黃帝內經의 脈理法과 診脈法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 : 東國대학교 한의과대 연구소 논문집. 1993 : 2(1).
8. 登良月. 中國針灸經絡通鑿, 青島 : 青島出版社. 1996.
9.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河北中醫學院. 黃帝內經靈樞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0.
1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 大星出

- 版社, 1986.
1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13. 王叔和撰·張世賢註. 校正圖註脈訣, 서울 : 醫道韓國社, 1976.
  14. 李東垣. 東垣醫集·內外傷辨惑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3.
  15. 周學霆. 三指禪,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 35.
  16. 林之瀚. 四診抉微,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7.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 翰成社, 1983.
  18.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 中國書店出版, 1987.
  19. 吳謙. 醫宗金監(中), 서울 : 大星出版社, 1983.
  20. 吳忠祥·王永宏. 醫宗金監·四診心法要訣註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8.
  21. 何夢瑤. 醫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4.
  22.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23.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4.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 : 廈門大學出版社, 1989.
  25. 陳無擇. 陳無擇三因方, 台北 : 台聯國風出版社, 1978.
  26.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3.
  27. 南京中醫學院 校釋. 難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9.
  28. 滑壽. 難經本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29.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30. 張山雷. 張山雷醫集·難經洵注箋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5.
  31.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 李潑, 身經通考,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3.
  33. 沈金鰲. 雜病原流犀燭,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34. 李景營. 千金翼方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35.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素問懸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6. 劉冠軍. 脈診, 台北 : 啓業書局, 1985.
  37.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38.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 : 臺灣中華書局, 1985.
  39. 張志總.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40. 鄧良月·黃龍祥. 中國針灸證治通鑿. 青島 : 青島出版社, 1995.
  41. 嚴建民, 中國醫學起源新論,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9
  42.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 北京出版社, 1997
  44.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88
  45. 安營基, 經穴學叢書, 서울 : 成輔社, 1986 : 318-319.
  46. 丹波元堅. 脈學輯要,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3